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Mobile : 010-7680-8653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2R 오후조 주요선수 코멘트**

**임희정, 이다연(경기 종료 기준)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KB금융 스타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9월 4일(목) ~ 9월 7일(일) |
| 3 | 장 소 | 블랙스톤 이천 [북 코스(OUT) / 서 코스(IN)] |
| 4 | 주 최 | KB금융그룹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5억 원 (우승상금 2억 7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722야드(예선), 6,718야드(본선)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유현조, 신다인, 홍정민, 이예원, 노승희, 박현경, 방신실, 김민선7, 이동은  고지우, 박지영, 이가영, 김민주, 배소현, 박혜준, 고지원, 박보겸, 김민솔  김시현, 송은아, 서교림, 박민지, 임희정, 이다연, 안송이, 전인지, 박예지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08시 ~ 18시  [2라운드] 08시 ~ 18시(SBS 지상파 16시-17시)  [3라운드] 09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09시 ~ 16시 |

**◈ 2R 2언더파 70타, 중간합계 2언더파 142타(72-70) 공동 7위 임희정(2019 본 대회 우승자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45>

**소감?**

이번주 첫 날부터 샷 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해서 연습 라운드 할 때 어프로치와 퍼트 등 쇼트 게임에 집중해서 준비했다. 그게 잘 맞아 떨어진 하루였다고 생각한다.

**오늘 잘 된 것?**

퍼트다. 전반에는 퍼트 거리감이 좋아 쉽게 파 플레이를 했고, 후반에는 위기가 몇 번 있었지만 퍼트가 잘 떨어져 줬다.

**위기?**

파3 14번 홀도 위기였고, 17, 18번 홀에서 파세이브 정말 어렵게 했다.

**뭐가 제일 어려웠나?**

핀 위치가 올 시즌 중 가장 까다롭다. 1라운드 때는 적응을 잘 못했다. 오늘은 핀 위치가 조금 눈에 익기 시작하면서 적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다.

**남은 라운드?**

아무래도 남은 라운드도 핀 위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. 쉽게 파를 잡아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선수가 유리할 것 같다. 이 코스는 방심하면 실수가 나오고, 그 실수로 인해 큰 타수를 잃게 되기 때문에, 그린 공간을 잘 구분 지어서 공략 잘 하는 선수, 그리고 체력과 정신력이 좋은 선수가 유리하다.

**본선부터 코스 전장이 바뀌는 몇 개 홀이 있는데?**

그 부분도 내일부터 순위 변화에 영향을 줄 것 같다. 당황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것이 키포인트일 것이다.

**\*본선 코스 전장 길이 변화**

서 코스(IN) 11번 홀(파4): 예선 307M(336Y) ⇒ 본선 334M(365Y)

서 코스(IN) 13번 홀(파3): 예선 165M(180Y) ⇒ 본선 180M(197Y)

서 코스(IN) 18번 홀(파5): 예선 511M(559Y) ⇒ 본선 465M(509Y)

**◈ 2R 이븐파 72타, 중간합계 1언더파 143타(71-72) 공동 15위 이다연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392>

**소감**

오늘 체력적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다. 시작할 때는 흐름이 좋았는데 중간 이후부터는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집중력이 떨어졌다. 많이 아쉽다.

**체력적으로 힘든 이유 더워서인지?**

일단 하반기가 되면서 너무 덥고, 4라운드 대회 많은데 최근 4라운드 대회에서 성적이 다 괜찮아서 집중력을 많이 쏟아 부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.

**내일 전략?**

핀 위치를 몰라서 조심스럽지만, 전체적으로 찬스를 기다려야 하는 코스다. 찬스 와주고 퍼트 떨어져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

**어떻게 준비?**

일단 지금은 무조건 푹 쉬어야 한다. 감은 좋아서 컨디션이 관건인데,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.

**4개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 도전 부담되는지?**

부담 보다는 목표로 삼고 있다. 그 기록이 있는 것을 알고 잘 준비하려 노력했고, 기대하고 있다. 체력적인 부분만 잘 된다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.

**cf. 이다연 이번 대회 우승시 4개 메이저 트로피 수집, 역대 메이저 다승 기록 공동 3위 올라**

